

전광훈 측에 '수억 원' 입금... '이단 해제' 대가?

기사입력 2020-01-23 20:34 최종수정 2020-01-23 20:59



[뉴스데스크] ◀ 앵커 ▶

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특정 교회 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
이 교회는 과거부터 이단 논란에 휘말렸던 곳인데,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, 이단이 아니라고 결정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홍의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.

◀ 리포트 ▶

지난해 6월,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청와대 앞 집회.

서울의 한 교회에 소속된 변 모 목사가 발언대에 섰습니다.

변 목사는 10년 전부터 국내 여러 교단으로부터 '이단'으로 규정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.

그런데, 전 목사는 집회 당시 노골적으로 변 목사를 옹호했습니다.

[전광훈 목사/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]

"가짜 기독교인들이 변OO를 이단, 이단하는데, 철저히 검증했더니 이단이 아니라 '참단'이더라고요, '참단'."

앞서 전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달 만인 지난해 3월 임원회를 열어 '변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'고 결론내렸습니다.

이단 논란을 털어버린 변 목사는 그 다음달 곧바로 한기총 공동회장을 맡습니다.

경찰은 최근 전 목사측과 변 목사 사이에 수억원대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교회 안팎에선 이단 시비를 정리해준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, 한기총은 "교회와 교회 사이에 헌금이 오간 것"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

하지만 전직 한기총 관계자들조차 정식 후원금은 당연히 한기총의 정식 계좌로 오고갈 뿐이라고 말합니다.

[김정환 목사/전 한기총 공동회장·실사위원장]

"목적 헌금은 반드시 그 기관, 교회든 한기총이든 돈이 들어와서 찍혀져야 되거든요, (한기총) 통장에. 아니라고 하면 그건 후원금이라고 할 수 없죠."

경찰은 지난해 7월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하면서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전 목사는 현재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 모금과 사전 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
MBC뉴스 홍의표입니다.

(영상취재 : 김경배 김우람 / 영상편집 : 이상민 / 영상출처 : 유튜브 '너알아TV')

홍의표 기자 (euypyo@mbc.co.kr)

[저작권자(c) MBC (<https://imnews.imbc.com>) 무단복제-재배포 금지]

▶ 네이버 홈에서 [MBC뉴스] 채널 구독하기

▶ [엠빅뉴스]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 실체를 공개합니다

▶ [14F] 전남친과 찍은 사진이 남아있다고? 응 그거 실화ㄴ 카카오톡 프사 대란

Copyright(c) Since 1996, MBC&iMBC All rights reserved.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214&aid=0001009636>
